

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현주* · 박상섭**

<요 약>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과세소득과 회계이익 간의 일시적차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므로 재량적 발생액의 대용치라는 정보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검토는 이익조정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에 초점을 두고 이연법인세자산은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과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를 보이며, 이러한 관계에 감사품질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 검증을 위한 표본에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세율변동효과와 측정의 신뢰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최종 2,670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재량적 발생액과 부(-)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이는 1,379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에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이는 경우에는 높은 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행태를 제한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은 재량적 발생액을 탐지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별 주제로 다루었던 이연법인세자산의 이익조정탐지와 이익조정수단이라는 상반된 관련성을 병합 접근하여 일반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고, 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핵심주제어: 이연법인세자산, 재량적 발생액, 감사품질

논문접수일: 2016년 10월 15일 수정일: 2016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16년 11월 17일

* 수원과학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조교수, lee-hj@ssc.ac.kr

** 수원과학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조교수, sspark@ssc.ac.kr

I. 서론

유용한 회계정보는 현금기준이 아닌 발생기준에 의해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시기가 결정된다. 이는 발생기준이 적시성과 예측가치를 갖추고 있어서 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성 측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손실이나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행위를 보일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자의성을 개입하여 수익의 조기인식이나 자산의 과대평가 등 재량적인 발생액을 인식한다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외부감사제도를 통해 제공된 회계정보의 질을 평가한 후 감사의견을 제시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결국 재무제표의 질은 감사품질의 의미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자본시장에서는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받는 기업일수록 이익의 질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익의 질은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으로 측정하고, 감사품질은 대형회계법인 여부로 측정¹⁾하여 검증하고 있다. 이때 재량적 발생액은 Jones (1991)모형이나 수정된 Jones모형(Dechow et al. 1995)과 같은 통합발생모형(Aggregate Accruals Models)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조정행태는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접근한 모형에서 측정된 추정치는 측정과 해석에 논란이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량적 발생액의 대응치에 관심을 갖고 감사품질이 그 대응치의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과세소득에 근거한 법인세부담액을 회계상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면 당기순이익의 정보

유용성은 저하될 것이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근거한 법인세비용이 아니므로 세전이익과 세후이익 간 비례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인세회계는 199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발생기준으로 인식되는 회계이익과 현금주의와 유사한 권리의무확정주의로 인식되는 과세소득 간의 인식시기상의 차이인 일시적 차이를 자산부채법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일시적 차이가 재량적 발생액과 관련성이 있다는 특성에 근거하여 우선 재량적 발생액의 eoddc1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이연법인세항목의 정보유용성을 검증한 후, 이러한 유용성에 감사품질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일시적 차이를 반영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항목은 재량적 발생의 대응치로서 이익조정탐지에 유용함이 검증되었다(전규안·박종일 2002; 최종서·문승엽 2005; 곽태완·노준화 2008). 이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의) 재량적 발생액이 반영된 회계이익이라면 과세소득을 도출하기 위한 세무조정은 차감하는 일시적차이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에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과세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인식되는 첫해에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될 것이다. 이후 연도에는 회계이익이 과세소득보다 적게 인식되므로 일시적차이의 소멸분으로 가산조정하게 되어 먼저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의 감소가 인식될 것이다. 결국 회계이익에 반영된 재량적 발생액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정(+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음(-의) 재량적 발생액이 반영된 회계이익이라면 과세소득을 도출하기 위한 세무조정

1) 최미화(2012), 김상현·백원선(2006), 백원선·김상현(2005) 등

은 가산하는 일시적차이가 되어 향후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므로 첫해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이는 향후에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세무조정에서 인식되는 첫해에 이연법인세자산이 인식되고 이후연도에는 회계이익이 과세소득보다 크게 인식되므로 일시적차이의 소멸분으로 차감조정하게 되고 기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가 인식될 것이다. 결국 회계이익에 반영되는 재량적 발생액과 이연법인세자산은 부(-)의 관계에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할 경우에 한하여 인식 가능하므로 그 실현가능성 판단에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과대평가하여 자산이 과대계상되면 법인세비용은 감소되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반면, 실현가능성의 과소평가로 자산이 과소계상되면 법인세비용은 증가되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이용한 이익조정행위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 정(+)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즉, 세후이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이익조정은 과대계상을 통해 재량적 발생을 증가시키는 이익조정행위의 수단일 수 있는 것이다(백원선·조현우 2005; 김상현·백원선 2006).

결과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은 재량적 발생액에 근거한 이익조정을 탐지하거나 이익조정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모두가 재량적 발생액과 관련성을 가지며 그 관련성은 서로 상반되고 이들의 관련성에 감사품질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 일반적인 관련성은 무엇이며, 감사품질이 이들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은 무엇인지 검증하여 향후 법인회계계의 정보 유용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회계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1. 발생기준과 이연법인세

기업회계기준의 논리적 틀을 제공하는 재무회계의 개념체계²⁾는 발생기준을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생기준은 현금기준에 비하여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기간귀속 문제와 직결하여 분식회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발생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 현금흐름과 비교하여 그 차액의 크기로 이익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그 차액이 커질수록 이익의 질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비영업활동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성과 전체를 나타내는 당기순이익과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법상 손익인식기준인 권리의무 확정주의로 측정된 과세소득과 발생기준 간의 차이를 구한 값이 이익의 질을 평가하는데 우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 Phillips et al.(2001)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소득의 고정치에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반영된 회계이익이 커질수록 이들 간의 차이는 커질 것이므로 이연법인세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입장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연법인세비용이 다른 모형보다 이익조정을 더 잘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본적인 재무회계의 이론은 상장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비상장기업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구분하여 각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양(+의) 재량적 발생액과 음(-)의 재량적 발생액은 일시적차이로 당기에 각각 차감조정과 가산조정을 하는 세무조정 사항이 된다. 이러한 일시적 차이는 미래에는 반대부호로 세무조정항목이 되므로 당기에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인식될 것이다. 또한 재량적 발생액은 새로 추가되거나 이미 인식된 재량적 발생액이 소멸되면서 변동되므로 이러한 변동액의 순효과는 결국 이연법인세비용을 통해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음(-)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할수록 이연법인세비용은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을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 검토에 대한 자의성 개입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재량적 발생액이 나타

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재량적 발생액과 이연법인세자산의 관계는 일시적 차이로 부터 원래 가지고 있는 부(-)의 관계와 실현가능성의 과대평가로 인한 정(+의) 관계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즉 실현가능성 검토로 인해 미인식되어야 할 이연법인세자산이 과대계상된 재량적 항목이라면 정(+의)과 부(-)의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여 어떤 관련성이 일반성을 가질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재량적 발생액이나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검토는 감사품질과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감사품질이 이들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실현가능성 검토시 내재되어 있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통제역할은 감사품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효과를 검증하여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표 1> 재량적 발생액(DA)과 이연법인세항목 간 관계

① 최초 인식시점의 잔액

재량적 발생액 유형	세무조정 유형	이연법인세항목
양(+의) 재량적 발생액	차감조정(미래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부채
음(-)의 재량적 발생액	가산조정(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자산

② 후속 인식시점의 변동액

재량적 발생액 유형	세무조정 유형	이연법인세항목
양(+의) (순)재량적 발생액	차감조정 ((+) < (-))	이연법인세비용증가
	(-)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감소 (-)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발생	(-) 이연법인세자산감소 (-) 이연법인세부채증가
음(-)의 (순)재량적 발생액	가산조정 ((-) < (+))	이연법인세비용감소
	(-)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감소 (-)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발생	(-) 이연법인세부채감소 (-) 이연법인세자산증가

2.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2.1 재량적 발생액과 이연법인세

재량적 발생액과 이연법인세항목 간의 관계를 이용해 이연법인세항목의 이익조정 탐지능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종서·문승엽(2005)은 이연법인세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액에 대한 증분설명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이연법인세변동과 비기대 이연법인세변동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곽태완·노준화(2008)에서는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에 의해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은 법인세부담액과 유의한 관계는 없지만 법인세비용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였다. 즉 기업이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미래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규안·박종일(2002)에서는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에 의해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하고 이연법인세 정보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회계이익이 과세소득보다 클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높을수록 이연법인세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할수록 양(+의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나타났다. 이연법인세부채가 변동된 기업이 이연법인세자산이 변동된 기업보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유의한 양(+의 차이)을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양(+의 재량적 발생)에 한하여 검증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는데 중요한 차별화가 있다. 즉, 음(-)의 재량적 발생액이 발생하면 이연법인세자산은 증가하므로 재량적 발생액과 이연법인세자산은 부(-)의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하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은 부(-)의 관계를 가진다.

2.2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과 감사품질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행위를 검증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원선·조현우(2005)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

하여 발생액의 질과 이익지속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집단에서 발생액의 질과 이익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발생액의 질은 영업현금흐름과 유동발생액에 초점을 두고 측정하여 비유동항목에 포함된 이연법인세 항목과 이익의 질은 평가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모두를 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유동항목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Jones모형을 이용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Jones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김상헌·백원선(2006)에서는 내부소유집중도가 낮을수록, 부채비율과 재무적 어려움이 높을수록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연법인세자산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품질이 낮을수록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과대평가하여 보고이익수준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높은 두 집단으로 구분된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Tobit모형과 Logistic모형을 사용하였다. 결국 이연법인세자산을 과대평가하는 경우에는 재량적 발생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면 법인세비용이 감소하여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에 의해 측정된 재량적 발생을 추가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은 정(+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이익조정효과까지 모두 반영된 당기순이익을 이용한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 간의 상반된 관계는 서로 상쇄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때 감사품질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연법인세자산은 기업의 미래 과세소득을 정확히 추정하여 그 실현가능성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추정에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과 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통제능력이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는 감사품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백원선·김상현(2005)에서 감사품질은 경영자의 재량권에 대한 통제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이연법인세자산의 과대나 과소계상을 제한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 간 정(+)의 관계는 약화시키고, 재량적 발생액의 대응치인 부(-)의 관계가 강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의 관계는 감사품질에 따라 차이를 가진다.

III. 연구설계

1. 표본선정

표본은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 데이터베이스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피흡수합병을 제외하고 추출하였다. 이러한 표본기간은 이

연법인세항목의 측정에 동일한 한계세율을 적용하고 세율 변동이 없는 회계기간을 이용하여 측정의 신뢰성과 세율변동 효과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즉, 2011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K-IFRS에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한계세율이 아닌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항목을 측정³⁾하므로 이연법인세항목의 측정치에 대한 신뢰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의 대상으로 중단사업손익이 없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K-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은 전영순·하승현(2011)의 표본이었던 조기업명단을 참고하여 표본 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K-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은 표본에서 차감되었다. 그 결과 2009년도는 12개 기업, 2010년도는 22개 기업이 제거되었다. 결국 연도-기업 최종 표본수는 전체 2,670개가 선정되었다. 자세한 선정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관련자료 미비기업에는 산업별 10개 미만인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수정된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이 적용된 산업별 재량적 발생을 해당 산업별 10개 기업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 선정된 2,670개 기업의 산업별 표본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본기간 중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전체 표본 중 약16%로 가장 비중이 높다. 반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통신업 등이 0.82%에서 0.9%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3) 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 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문단 49).

<표 2> 표본의 선정절차 및 연도별 분포

선정기준		2009		2010	
		KOSPI	KOSDAQ	KOSPI	KOSDAQ
비금융업 전체 표본수		646	940	655	948
차감	적정의견 이외 기업	(3)	(7)	(4)	(4)
	K-IFRS 조기도입기업 ^{*)}	(7)	(5)	(14)	(8)
	12월결산 이외 기업	(20)	(18)	(20)	(19)
	관리종목	(12)	(17)	(12)	(20)
	중단사업손익 보고기업	(26)	(23)	(11)	(12)
	관련자료 미비기업	(63)	(65)	(64)	(65)
연도-시장 최종 표본수		515	805	530	820

* 적정의견과 중단사업손익 보고기업은 직전년도를 포함하여 고려함.

<표 3> 표본의 산업별 분포

산업	빈도	백분율
식료품 제조업	83	3.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의	36	1.3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6	1.3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3	1.9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73	6.4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61	6.0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1	2.6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4	2.02
1차 금속 제조업	146	5.4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8	2.9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37	16.3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2	2.7
전기장비 제조업	90	3.3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40	8.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0	5.2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8	1.0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4	0.9

4) 전영순·하승현(2011) 본문 <표 2>에 제시된 K-IFRS 조기도입 기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밑줄친 기업들이 표본에서 제외된 기업들이다.

도입연도	시장	도입회사
2009 (14사)	유가증권시장 (7사)	KT&G, STX 팬오션, 영진약품공업, 이건설업, 코스모화학, 풀무원홀딩스, 케이퍼코리아
	코스닥시장 (7사)	국제엘렉트릭코리아, 다스텍, 디스플레이테크, 에코에너지홀딩 스, 인선이엔터, 지코엔루터즈, 한국큐빅
2010 (37사)	유가증권시장 (22사)	LG, LG디스플레이, LG 생명과학, LG 생활건강, LG 이노텍, LG 유플러스, LG 전자, LG하우시스, LG 화학, STX엔진, STX 조선해양, 나이스홀딩스, 대한해운, 삼성 SDI,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신일산업, 세하, 지투알, 한국프렌지공업, 한솔홈데코, 화승알앤에이
	코스닥시장 (15사)	나우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나이스정보통신, 넥스콘테크, 듀 오백코리아, 빛과전자, 우원개발, 우주일렉트로닉스, 이라이콤, 에스디, 에스코넥, 엔터기술, 유진기업, 중앙백신, 프롬썬어티

종합 건설업	68	2.55
전문직별 공사업	25	0.94
도매 및 상품중개업	153	5.73
소매업; 자동차 제외	45	1.6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4	0.9
출판업	154	5.77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0	1.12
통신업	22	0.8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6	1.35
정보서비스업	36	1.35
전문서비스업	96	3.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8	1.05
사업지원 서비스업	31	1.16
계	2,670	100

2. 연구모형

기업은 손실회피나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회계이익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송인만 외 2004). 이러한 회계상 발생액은 일반적으로 회계이익을 과소소득보다 크게 만들고, 세무조정 중 일시적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일시적 차이는 기간간 배분회계에 의해 이연법인세항목으로 회계처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연법인세회계는 재량적 발생액의 효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익조정의 측정치인 양(+)의 재량적 발생액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증가시키고, 음(-)의 재량적 발생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증가시켜 동시에 법인세비용에 영향을 준다.

한편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과대평가하면 법인세비용은 감소하여 세후 회계이익인 당기순이익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과소계상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목표이익 달성이나 부채비율 감소⁵⁾ 등과 같은 사유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 행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즉, 재량적 발생

액의 대응치인 이연법인세항목인 이연법인세자산에 한하여 재량적 발생액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이용한 추가적인 이익조정이 내재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을 이용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 일반적인 비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일시적차이로 인한 음(-)의 관계를 보일지, 이연법인세자산의 과대계상으로 인한 양(+)의 관계가 나타날지, 그리고 감사품질이 이러한 비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래와 같은 검증모형 식(1)을 도출하여 검증하였다.

$$DA_{it} = a_0 + a_1 DTA_{it} + a_2 DTA_{it} \cdot D_{it} + a_3 D_{it} + a_4 Loss_{it} + a_5 Size_{it} + a_6 LEV_{it} + a_7 CFO_{it} + a_8 ROA_{it} + a_9 MB_{it} + a_{10} MKT + a_{11} YD + \Sigma IND + \varepsilon_{it} \quad (1)$$

여기서,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DA_{it} :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계산된 기업 i의 t기 재량적 발생액(식 1)
- DTA_{it} : 기업 i의 t기 이연법인세자산/기초 총자산
- D_{it} : 기업 i의 외부감사법인이 Big4면 1, 아니면 0

5) 김수성·고윤성(2012)

$Loss_{it}$: 기업 i의 t-1기, t기 당기순이익<0면 1, 아니면 0
 $Size_{it}$: 기업 i의 t기 기초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LEV_{it} : 기업 i의 t기 기초 총부채/기초 총자산
 CFO_{it} : 기업 i의 t기 영업활동현금흐름/기초 총자산
 ROA_{it} : 기업 i의 t기 세전순이익/기초 총자산
 MB_{it} : 기업 i의 t기 기초 시가총액/기초 자기자본
 MKT : 기업 i가 KOSPI면 1, KOSDAQ이면 0
 YD : 연도더미. 2009년도면 1, 아니면 0
 $SIND$: <표 3>에 제시된 각 해당업종이면 1, 아니면 0
 ε_{it} : 기업 i의 t년도의 오차항
 DA_{it} :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계산된기업 i의 t기 재량적 발생액(식1)

PPE_{it} : 기업 i의 t기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
 ε_{it} : 기업 i의 t년도의 오차항

한편 McNichols(2000)은 Jones(1991)모형보다 기업의 경영성과 특징을 반영하여 수정된 Jones(Dechow et al. 1995)모형에서 이익조정이 더 잘 관찰되었다고 제시하였다.⁶⁾ 따라서 식(2)와 같이 수정된 Jones(Dechow et al. 1995)모형으로 도출된 각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식(3)을 도출하고 여기에 해당 변수를 대입하여 재량적 발생액(DA_{it})⁷⁾을 구하였다.

$$TA_{it}/A_{it-1} = b_1[1/A_{it-1}] + b_2[(\Delta Sales_{it} - \Delta REC_{it})/A_{it-1}] + b_3[PPE_{it}/A_{it-1}] + \varepsilon_{it} \quad (2)$$

$$DA_{it} = TA_{it}/A_{it-1} - (b_1[1/A_{it-1}] + b_2[(\Delta Sales_{it} - \Delta REC_{it})/A_{it-1}] + b_3[PPE_{it}/A_{it-1}]) \quad (3)$$

여기서,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TA_{it} : 기업 i의 t기 총발생액(=당기순이익-영업활동 현금흐름)
 A_{it-1} : 기업 i의 t기 기초 총자산
 $\Delta Sales_{it}$: 기업 i의 t기 순매출액의 변화
 ΔREC_{it} : 기업 i의 t기 매출채권의 변화

본 연구의 목적은 재량적 발생과 이연법인제 자산 간의 일반적인 관계를 검증하고, 감사품질이 이러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증모형 식(1)에서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관심변수는 이연법인제자산(DTA_t)이며,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관심변수는 이연법인제자산과 감사품질을 결합한 상호작용변수($DTA_{it} \cdot D_{it}$)다. 즉, 가설 1에 따라 DTA_t 상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가설 2는 DTA_t 와 $DTA_{it} \cdot D_{it}$ 의 회귀계수를 F-test하여 감사품질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감사품질은 감사규모가 클수록 높아진다는 논란은 국내연구의 경우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DeAngelo(1981) 이후 많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검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김상현·백원선(2006), 백원선·김상현(2005) 등과 동일하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형회계법인(Big4) 여부를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한편 이월결손금 및 손실기업의 행태를 통제하고자 전기와 당기에 모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더미변수(Lossit)로 사용하여 통제하였다.

McNichols(2000)은 ROA와 성장률이 재량적 발생액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ROA와 성장기회를 의미하는 MB(=시가총액/자기자본)를 기업규모와 함께 통제하였다. 또한 부채계약조항에 의한 이익조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부채비율(LEV_{it})을 통제변수에 추가하였으며, 총 발생액과 부(-)의 관계에 있는 영업활동으로 부더의 현금흐름(CFO_{it})도 통제변수에 추가하였다.

6) 이러한 이유로 최현섭(2010) 등 많은 선행연구에서 수정 Jones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Kothari et al.(2005)에서 제안된 모형이 수정 Jones모형의 설정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 곽영민(2014) 등 최근 연구에서는 Kothari et al.(2005)가 제안한 모형을 사용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기도 한다.

7) 식(2)에서 30개 산업별로 회귀분석하여 각각의 회귀계수를 추정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를 위한 검증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는 <표 4>와 같이 분석되었다. 주요변수인 재량적 발생액(DA)과 이연법인세자산(DTA)은 다른 변수들에 비하여 편차가 적으며, 특히 재량적 발생액(DA)은 평균과 중위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중속

변수인 재량적 발생액(DA)과 주요변수인 이연법인세자산(DTA),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기업의 성장기회(MB)는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단변량분석 보다는 다변량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은 기업규모(Size)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부채비율(LEV)과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특히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CFO)과 총자산순이익률(ROA) 간에 유의수준 1%에서 상관계수 0.8이 상의 높은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성장기회

<표 4>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N = 2,670)

	DA	DTA	D	LOSS	Size	LEV	CFO	ROA	MB
평균	-0.003	0.011	0.573	0.101	25.461	0.420	0.076	0.076	1.109
중위수	-0.003	0.000	1.000	0.000	25.190	0.416	0.059	0.061	0.680
표준편차	0.121	0.067	0.495	0.302	1.438	0.205	0.236	0.363	5.175
제1사분위수	-0.056	0.000	0.000	0.000	24.526	0.263	0.000	0.013	0.367
제3사분위수	0.050	0.013	1.000	0.000	26.105	0.561	0.131	0.130	1.192
최대값	1.959	3.341	1.000	1.000	31.915	2.034	10.041	16.944	254.221
최소값	-1.185	0.000	0.000	0.000	20.011	0.009	-0.627	-1.478	-4.122
DA		0.013 (0.511)	0.058 (0.003)	-0.252 (<.0001)	0.004 (0.835)	0.006 (0.739)	-0.193 (<.0001)	0.219 (<.0001)	-0.007 (0.720)
DTA			-0.017 (0.385)	-0.019 (0.314)	-0.110 (<.0001)	0.064 (0.001)	0.800 (<.0001)	0.867 (<.0001)	0.915 (<.0001)
D				-0.128 (<.0001)	0.295 (<.0001)	0.020 (0.295)	0.051 (0.009)	0.060 (0.002)	-0.036 (0.060)
LOSS					-0.083 (<.0001)	0.114 (<.0001)	-0.153 (<.0001)	-0.206 (<.0001)	0.014 (0.455)
Size						0.173 (<.0001)	-0.109 (<.0001)	-0.083 (<.0001)	-0.060 (0.002)
LEV							-0.023 (0.229)	-0.021 (0.284)	0.056 (0.004)
CFO								0.876 (<.0001)	0.764 (<.0001)
ROA									0.839 (<.0001)

1) 괄호 안의 값은 p-value임.

2) 변수설명: DA=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계산된 재량적 발생, DTA=당기말 순이연법인세자산=(유동이연법인세자산+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유동이연법인세부채+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기초자산총액, D=외부감사법인이 Big4면 1, 아니면 0, Lossit= t-1기와 t기 당기순이익 <0 이면 1, 아니면 0, Sizeit= t기 기초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LEVit= t기 기초 총부채/기초 총자산, CFOit=t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기초 총자산, ROAit=t기 세전순이익/기초 총자산, MB_{it}= t기 기초 시가총액/기초 자기자본

(MB)와 유의수준 1%에서 상관계수 0.9이상을 보였다. 이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이익조정행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재량적 발생액과 이연법인세자산 간 부(-)의 관계를 예측한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McNichols(2000)에서 총자산순이익률(ROA)와 성장률(MB)이 재량적 발생액과

정(+)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것과 다르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과 함께 재량적 발생 관련 기업특성을 구분한 변수들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표 5> 주요변수 간 평균에 따른 차이분석

구분	표본수	DA _t	DTA _t	CDTA _t
Big 4	1,529	0.003	0.010	0.000
Non-Big 4	1,141	-0.011	0.013	0.004
t-value		-3.00***	0.76	0.96
LEV_H	1,336	-0.002	0.014	0.003
LEV_L	1,334	-0.003	0.009	0.001
t-value		-0.16	-1.71*	-0.87
KOSPI	1,045	0.000	0.006	-0.000
KOSDAQ	1,625	-0.005	0.015	0.003
t-value		-1.2	3.96***	1.94*

- 1)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2) 변수설명: DA= 수정 Jones모형(1995)으로 측정한 재량적 발생, DTA_{it}=당기말 순이연법인세자산=(유동이연법인세자산+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유동이연법인세부채+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 / 기초자산총액, CDTA_{it}=(기업 i의 t기 이연법인세자산 - t-1기 이연법인세자산)/기초 총자산, Big 4=삼일, 삼정, 안진, 한영 회계법인, Non-Big 4=Big 4이외 회계법인, LEV_H=부채비율(LEV) 중위수 보다 높은 기업, LEV_L=부채비율(LEV) 중위수 보다 낮은 기업, KOSPI=주권상장기업, KOSDAQ=코스닥상장기업

2. 차이분석

이연법인세항목과 다른 설명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다중공선성이 예상되므로 기업집단을 구분하여 차이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인 재량적 발생(DA), 이연법인세자산(DTA), 그리고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액(CDTA)을 추가하여 집단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감사품질에 따른 주요변수 간 평균차이를 보면 선행연구와 달리, 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을 묶은 Big4가 Non-Big 4보다 유의하게 더 큰 양(+)의 재량적 발생을 나타내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부채비율차이(LEV_H, LEV_L)나 주권상장 유무(KOSDAQ, KOSPI)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부채비율이 높은 집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부채비율은 이연법인세자산의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변량분석시 분산확대계수(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파악하였다.

한편 주권상장(KOSPI)과 코스닥상장(KOSDAQ) 간의 이연법인세자산(DTA)과 이연법인세변동액(CDTA)은 각각 1%,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검증모형에 시장구분도

통제변수에 추가하여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3. 가설검증

이연법인세자산(DTA)은 재량적 발생액(DA)의 대응치 입과 동시에 실현가능성 검토를 이용

한 이익조정을 행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량적 발생액과 이연법인세 자산 간의 일반적인 관계를 검증하고, 여기에 감사품질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식(1)의 검증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회귀분석 결과

$$\text{Model 1: } DA_{it} = a_0 + a_1 DTA_{it} + a_2 DTA_{it} \cdot D_{it} + a_3 D_{it} + a_4 \text{Loss}_{it} + a_5 \text{Size}_{it} + a_6 \text{LEV}_{it} + a_7 \text{CFO}_{it} + a_8 \text{ROA}_{it} + a_9 \text{MB}_{it} + a_{10} \text{MKT} + a_{11} \text{YD} + \sum \text{IND} + \varepsilon_{it}$$

변수	Total (N=2,670)	DA > 0 (N=1,291)	DA < 0 (N=1,379)
Intercept	-0.093 (-1.91)*	0.186 (3.3)***	-0.408 (-8.38)***
DTA	-1.153 (-10.88)***	-1.079 (-7.91)***	0.134 (0.88)
DTA · D	1.135 (6.41)***	1.093 (5.43)***	-0.416 (-1.94)*
D	-0.020 (-4.02)***	-0.016 (-2.73)***	-0.010 (-2.1)**
LOSS	-0.030 (-3.98)***	0.025 (2.1)**	-0.002 (-0.25)
Size	0.003 (1.54)	-0.006 (-2.48)	0.013 (6.54)***
LEV	0.043 (4.12)***	0.073 (5.93)***	-0.012 (-1.15)
CFO	-0.000 (-3.96)***	-0.000 (-2.84)***	-0.000 (-3.18)***
ROA	0.319 (23.04)***	0.273 (15.42)***	0.260 (17.88)***
MB	-0.005 (-4.63)***	-0.004 (-2.74)***	-0.001 (-0.55)
MKT	포함	포함	포함
YD	포함	포함	포함
ΣIND	포함	포함	포함
F-test: a ₁ + a ₂ = 0	0.01	0.01	3.36*
Adj. R ²	0.22	0.19	0.29
F-value	69.89***	28.32***	52.01***
최대VIF값	11.94	28.23	2.31

- 1) 괄호 안의 값은 t-value임.
-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3) 변수설명: DA= 수정 Jones모형(1995)으로 측정된 재량적 발생, DTA_{it}=당기말 순이연법인세자산=(유동이연법인세자산+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유동이연법인세부채+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 / 기초자산총액, D=외부감사법인인 Big4면 1, 아니면 0, Loss_{it} = t-1기와 t기 당기순이익 < 0 이면 1, 아니면 0, Size_{it}=t기 기초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LEV_{it}=t기 기초 총부채/기초 총자산, CFO_{it}= t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기초 총자산, ROA_{it}=t기 세전순이익/기초 총자산, MB_{it}=t기 기초 시가총액/기초 자기자본, MKT=주권상장기업이면 1, 아니면 0, Year=2009년도면 1, 아니면 0, ΣIND= <표 3>에 제시된 각 해당업종이면 1, 아니면 0

전체표본 2,67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연법인세자산(DTA)과 재량적 발생액(DA)은 유의수준 1%에서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즉, 가설 1과 같이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

평가를 이용한 이익조정수단보다는 재량적 발생액의 대응치라는 정보유용성이 일반적인 기능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감사품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품질

질이 높은 이연법인세자산은 유의수준 1%에서 재량적 발생액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며 일반적인 이연법인세자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일반적인 부(-)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내며 가설 2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F-test 결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수정결정계수는 0.22이지만 다중공선성 측정치인 분산확대계수(VIF)의 최대치가 11.94로 높게 나타나 해석에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량적 발생의 방향성에 따라 두 집단을 구분한 후 이연법인세자산과 밀접한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이때 재량적 발생이 양(+)의 값인 경우는 훨씬 더 큰 VIF값을 보였으나,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나타내는 표본에서는 분석결과 VIF가 2.9 이하로 낮아졌다. 따라서 해당 표본 1,379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정결정계수가 0.29이고 이연법인세자산(DTA)과 재량적 발생액(DA)은 정(+)의 부호를 보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를 이용한 이익조정행태가 재량적 발생액에 내재되어 재량적 발생액의 대응치 기능과 상반되어 소멸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음(-)의 재량적 발생액에서는 가설 1이 기각되었다. 둘째, 감사품질이 높은 이연법인세자산(DTA·D)은 재량적 발생액(DA)과 유의수준 10%에서 부(-)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F-test도 유의하게 나타내며 가설 2를 입증하였다. 따라서 높은 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를 이용한 이익조정행태를 제한하여 일반적 관계인 재량적 발생액의 대응치를 의미하는 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높은 감사품질은 이연법인세자산의 과대평가를 감지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유의수준 1%에서 감사품질(D)이 높으면 재량적 발생액(DA)은 감소한다는 일관된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업특성인 기업규모(Size)와 수익성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유의수준 1%에서 재량적 발생액(DA)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CFO)도 유의수준 1%에서 재량적 발생액(DA)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며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V. 결 론

이연법인세항목은 과세소득과 회계이익 간의 일시적 차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므로 재량적 발생액의 대응치라는 정보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검토는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에 초점을 두고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과 어떤 관계를 보이며, 이러한 관계에 감사품질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재량적 발생액과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부(-)의 관계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감사품질이 높은 이연법인세자산은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F-test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 유의한 비례관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앞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VIF가 높아 해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연

법인세자산과 밀접한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량적 발생액과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정한 비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품질이 높으면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이연법인세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재량적 발생액 간 정(+)의 관계가 높은 감사품질로 인해 제한받으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결국 감사품질은 재량적 발생액의 대응치라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정보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구체적인 실현가능성 판단에 근거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행태를 측정하지 못하고, 감사품질을 정교하게 측정하지 않고 대형회계법인 여부로 정의하여 해석에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첫째, 이연법인세부채가 재량적 발생의 대응치로 가능한지 분석한 선행연구와 달리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둘째,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를 이용한 이익조정행태에 대하여 검증한 선행연구와 달리, 이연법인세자산의 이익조정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사품질을 고려하였으며, 셋째, 선행연구에서 개별 주제로 다루었던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 간의 상반된 관계를 병합하여 접근하였다는 데에 차별성이 있다.

향후에는 감사품질과 이연법인세항목의 이익조정행태에 대한 보다 정교한 측정을 통해 IFRS 도입이후에 이연법인세항목이 갖는 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제고시키는 요인과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광영민(2014), “감리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경영정보연구*, 33(5), 71-84.
2. 광태완·노준화(2008), “재량적 발생액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17(3), 1-20.
3. 김상현·백원선(2006), “재무보고비용과 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1(1), 193-224.
4. 김수성·고윤성(2012), “이연법인세를 이용한 이익 조정 행위 측정에 관한 연구: 부채비용 감소기업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41, 39-60.
5. 김정재(1997), “감사의견변경과 이익반응계수,” *회계학연구*, 22(2), 163-180.
6. 김창수·허영민(2016), “신용분석을 위한 특수회계,” 한국금융연수원
7. 박성원·고종권(2012), “손실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 실현가능성과 보수주의의 정보효과,” *회계저널*, 21(4), 99-134.
8. 백원선·김상현(2005), “미래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 감사품질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가치관련성,” *회계학연구*, 30(1), 99-120.
9. 백원선·조현우(2005),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한 미래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과 발생액의 질 및 이익지속성,” *회계학연구*, 30(2), 25-51
10. 송인만·백원선·박현섭(2004), “적자 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 *회계저널*, 13(2), 29-51.
11. 이만우·신현결(2000), “이연법인세회계 최초 도입연도의 회계처리에 대한 평가,” *회계저널*, 9(1), 51-65.
12. 전규안·박종일(2002), “이연법인세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27(1), 107-135.
13. 전성일·최관(2004), “이연법인세차의 실현가

- 능성과 가치관련성,” *회계학연구*, 29(4), 65-86.
14. 최미화(2012), “고객중요성, 기업소유구조와 감사품질의 정보효과,” *경영정보연구*, 31(1), 221-246.
 15. 최종서·문승엽(2005), “이연법인세 정보를 이용한 이익조정의 탐지,” *회계학연구*, 30(1), 93-132.
 16. 최헌섭(2010), “기업수명주기별 발생액의 가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경영정보연구*, 29(4), 23-44.
 17. Caramanis, C and Lennox, C.(2008), “Audit effort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5, 116-138.
 18. Cho, J. and Jung, K.(1991),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s: A Synthesis of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0, 85-116.
 19. Dechow, P. M. and Dichev, L. D.(2002), “The quality of accruals and earnings: The role of accrual estimation errors,” *The Accounting Review*, 77(Supplement), 35-59.
 20. Dechow, P. M., R. G. Sloan, and Sweeney, A. P.(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193-225.
 21. DeAngelo, Linda E.(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December, 183-199.
 22. Jones, J.(1991),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 193-228.
 23. McNichols(2000), “Research design issues in earnings management studie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9, 313-345.
 24. Miller, G. S. and Skinner, D. J.(1998), “Determinants of the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s under SFAS No. 109.” *The Accounting Review*, 73(April), 213-233.
 25. Phillips, J., Pincus, M., and Rego, S. O.(2001), “Earnings Management: 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Working Paper*, University of Iowa.
 26. Teoh, S. H. and Wong, T. J.(1993), “Perceived Auditor Quality and th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The Accounting Review*, 68(April), 346-366.

Abstract

The effects of audit qu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rred tax assets and discretionary accruals

Lee, Hyun-Joo* · Park, Sang-Seob**

Deferred tax assets (liability) in a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are to reflect the temporary difference between taxable income and accounting income and therefore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as a proxy for discretionary accruals. In addition, deferred tax assets allow a company to manage its earnings by reviewing the feasibility of the assets' recognition. As such, this study focused on deferred tax assets to examine their relationship with discretionary accruals, which were measured by a modified Jones model (Dechow et al. 1995), and investigated the impact of audit quality on this relationship. In order to control for the effects of tax rate change and measurement credibility, deferred tax assets of 2,670 non-financial firms from 2009 to 2010 were collected as samples for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samples as a whole indicated that deferred tax assets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discretionary accruals in a general sense, but a high-quality audit did not reveal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m. Second, the 1,379 samples with negative discretionary accruals did not reveal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deferred tax assets and discretionary accruals; however, the result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under a high-quality audi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the case of negative discretionary accruals, a high-quality audit restricts an earnings management technique that utilizes deferred tax assets and that the assets can be a useful tool for detecting discretionary accruals. The present study is meaningful in that, unlike previous research, it combined the two contrasting roles of deferred tax assets—that of an earnings management detector and an earnings management tool—to examine their general relationship. The study also suggested that audit quality could influence the usefulness of deferred tax assets in providing information on discretionary accruals.

Key Words: deferred tax assets, discretionary accruals, audit quality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Tax & Accounting Information, Suwon Science College, lee-hj@ssc.ac.kr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Tax & Accounting Information, Suwon Science College, sspark@ssc.ac.kr